럭셔리카 정수…벤츠 최상위 SUV '마이바흐 GLS' 출시

2021년 출시 후 3년만의 첫 부분변경 모델…2개 라인업 구성
투톤 페인트 매력적 컬러·마이바흐 레터링 등 세련미 돋보여

럭셔리카의 대명사 마이바흐가 선보이는 SUV, 마이바흐 GLS가 첫 부분변경을 거쳐 소비자를 만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의 부분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를 출시하고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는 지난 2021년 출시된 전작의 3년 만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투톤 페인트를 포함하는 매력적인 외장 컬러, 실내에 고급감을 더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시트 커버를 갖췄다.

항공기 일등석과 같은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마이바흐 주행 프로그램과 'E-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 등 마이바흐만의 럭셔리함이 돋보이는 요소를 통해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됐다.

국내에는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 4MATIC'과 특별한 외관 컬러 및 인테리어 트림이 적용된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 4 MATIC 마누팍투어'의 총 2종의 라인업으로 제공된다.

먼저 더 뉴 마이바흐 GLS의 내외관은 섬세한 변화를 줬다.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고광택 크롬 바가 수직으로 배열됐으며, 상단에는 '마이바흐' 레터링이 새겨졌다. 레터링은 도어 실 패널, 차량 후면부 및 휠 등 차량 곳곳에 장식됐다.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 4MATIC에는 23인치 마이바흐 멀티스포크 단조 휠이,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 4MATIC 마누팍투어에는 23인치 마이바흐 5 스포크 단조 휠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또 마누팍투어 모델에는 외관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투톤 페인트 외장 컬러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옵시디안 블랙과 마누팍투어 칼라하리 골드 투-톤 색상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현대적인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하이테크 실버와 노틱 블루 투-톤 색상이 새로운 옵션으로 추가됐다.

인테리어 역시 최고급 소재와 장인정신이 담긴 디테일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시트 커버 디자인이다. 시트 표면과 등받이 중앙 부분에 적용된 고품질 다이아몬드 패턴 퀼팅은 마이바흐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마이바흐 GLS 전용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이 적용됐다. 특히, 마누팍투어 모델에는 세련된 분위기의 헬리오스 컬러도 옵션으로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여기에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마누팍투어 플로잉 라인 블랙 피아노 라커', '브라운 오픈 포어 월넛 우드', '엔트러사이트 오픈 포어 오크 우드' 총 3종의 인테리어 트림 옵션을 제공한다.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내관과 ▶외관 모습. 〈벤츠 제공〉

이번 부분변경 모델에는 에어 챔버와 온열기능으로 등과 요추를 마사지하며 편안함을 제공하는 멀티컨투어 시트가 앞·뒷좌석에 모두 탑재됐다.

이 밖에도 탑승자의 기분과 취향에 따라 차내 온도, 앰비언트 라이트, 마사지 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조절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에너자이징 패키지 플러스는 물론, 팔걸이와 도어 패널 등에도 온열 기능을 제공하는 열선 패키지가 포함된다.

소리에도 신경을 썼다. 더 뉴 마이바흐 GLS에는 특수 유리막과 보충재 등으로 외부 소음 차단 및 단열 효과를 극대화하는 어쿠스틱 컴포트 패키지가 함께 탑재돼 뛰어난 소음, 진동 감소 성능을 자랑한다. 또 차량에 기본사양으로 탑재된 부메스터 하이엔드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과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기술은 29개의 고성능 스피커와 1610W의 시스템 출력으로 차량 내에서도 콘서트홀과 같은 깊고 풍부한 음향을 제공한다.

더 뉴 마이바흐 GLS에는 뒷좌석 탑승객을 위해 최상급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탑재됐다. 먼저,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된 이그제큐티브 시트는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등받이를 최대 43.5도까지 기울일 수 있다.

뒷좌석 탑승객은 두 개의 11.6인치 터치스크린이 포함된 MBUX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영화, 음악을 재생하거나 웹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두 개의 메르세데스-벤츠 무선 헤드셋과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7.4 인치 탈착식 MBUX 뒷좌석 태블릿이 함께 제공된다.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 4MATIC에 탑재된 4리터 V형 8기통 M177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557 ps, 최대 토크 78.5 kgf·m에 달하는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와 48볼트 전기 시스템이 포함돼 필요 시 추가적으로 16kW의 출력을 지원해 효율적인 연료 소비를 돕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분기 수입차시장 하이브리드차, 가솔린차 추월 첫 '1위'

가솔린차 판매 비중 1년새 21%p↓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1분기 기준 처음으로 가솔린(휘발유)차 판매량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하이브리드차가 월간 등록 대수에서 가솔린차를 처음 추월한 이후 '하이브리드 강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1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3월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7.5%(2만5908대)로 가장 높았다. 작년 1분기(1만9763대) 대비 16.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솔린차 비중은 49.0%(3만849대)에서 무려 21%포인트 감소한 28.0%(1만5292대)로 2위로 내려앉았다.

1분기 기준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가솔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지기는 2016년 1분기(27.0%) 이후 8년 만이며, 하이브리드차에 추월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하이브리드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연료 효율이 더 높은 데다, 충전 인프라 등을 이유로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대체재로 하이브리드차를 찾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차와 가솔린차에 이어 많이 판매된 수입차는 전기차였다. 올해 1분기 새롭게 등록된 수입 전기차는 작년 1분기보다 5384대 늘어난 1만237대(18.8%)였다. 1분기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1만대를 돌파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하이브리드차, 가솔린차, 전기차에 이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1%(1718대)로 4위를 차지했고, 디젤(경유)차는 2.6%(1428대)로 연료별로 놓고 볼 때 최하위에 머물렀다.

수입 디젤차의 경우 2020년 1분기만 해도 전체 등록 수입차의 27.9%를 차지하며 가솔린(55.9%)에 이어 2위에 랭크됐지만, 이후 비율이 급감해 올해는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1분기 수입 하이브리드차를 모델별로 살펴보면 등록 대수 1위는 5천459대를 기록한 BMW 5시리즈였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2039대), 렉서스(181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 모델Y가 6012대로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BMW i5(522대), BMW iX3(443대) 등의 순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 인천 도심 달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MOU
내년 상반기까지 60㎞ 실증주행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SW) 협력사들과 개발 중인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사진〉의 시험 운행이 인천에서 실시된다.

현대모비스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와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송도와 영종도 일대 60㎞ 구간을 운행한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는 20여곳의 스타트업과 협력사, 연구기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자율주행 레벨 4단계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판단해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인천시는 이번 실증사업을 계기로 이 지역을 스마트시티 기반 혁신 생태계 특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실증 주행에서 그동안 확보한 자율주행 솔루션 역량도 검증한다.

특히 장거리 도심 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자율주행 솔루션 고도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차량용 SW 개발 및 양산을 위해 실증차에 차량제어를 담당하는 반도체인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MCU)을 대체하는 고성능 프로세서를 탑재한다. 오픈소스 기반의 SW 설계 역량과 전력 최적화 기술도 확보한다.

아울러 SW 플랫폼 통합 과정에서 부품 수와 배선을 줄이는 경량화 설계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장이나 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안전성을 높이는 시스템인 이중화 제어 설계기술을 적용한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MOU로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현대차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점검 캠페인'

현대차는 15일 봄철을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오는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전국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통학차량으로 운영 중인 스타리아와 스타렉스, 중·대형 상용버스(카운티·유니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대차는 무상점검 캠페인을 통해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전반을 점검해주는 '차량 진단 점검' ▲와이퍼·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등 일반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소모품 교환·보충 서비스' ▲실내 항균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22일까지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https://www.hyundai.com)에 있는 안내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선택, 선착순으로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점검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080-600-6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보다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 해당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윤장혁(오른쪽)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와 현대성우쏠라이트 고장환 레이싱 담당 이사가 후원 조인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후원

레이싱 타이어 공급 조인식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15일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팀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을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에 출전하는 쏠라이트 인디오 레이싱 팀에게 2024시즌 동안 금호타이어 레이싱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 레이스카와 드라이버 수트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하기로 했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스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로 레이스가 진행된다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는 최고 출력 478㎾(650마력)의 전·후륜 모터와 84.0㎾h의 고출력 배터리 등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고 서킷 주행을 위한 여러 요소를 추가해 제작한 경주차다.

금호타이어가 후원하기로 한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1997년 창단한 국내 최고의 레이싱팀이다. 2019년 블랑팡 지티 월드 챌린지 아시아 드라이버 종합 우승, TCR 아시아 팀 종합 2위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바 있다.

또한 지난 2023년 TCR 이탈리아에 아시아팀 최초로 풀 시즌 출전해 톱10에 진입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윤장혁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국내 최고의 명문 레이싱팀인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과 후원 계약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계약으로 양 사는 신뢰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국내외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내년 픽업 시장 진출…첫 차명 '타스만'

기아가 브랜드 최초로 출시하는 첫 픽업트럭의 이름을 '더 기아 타스만'으로 정했다.

기아는 지난 11일 브랜드 출범 후 처음으로 출시하는 중형 픽업트럭의 이름을 공개하며 픽업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차명 타스만은 호주 최남단에 있는 '영감의 섬' 타스마니아와 타스만 해협에서 유래했다.

기아는 개척 정신과 자연의 신비로움이 공존하는 섬의 이미지를 투영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픽업트럭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타스만을 내년부터 국내와 호주, 아시아·중동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야외 여가 활동 인구를, 해외에서는 오프로드 차량 애호가들을 겨냥한다는 취지다.

한편, 기아는 타스마니아 섬의 대장장이가 타스만 엠블럼을 제작하는 내용의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사진〉

기아는 지난달 3일 호주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기아의 새로운 픽업트럭 차명을 추측하는 내용의 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